

대구BBS 제1회 신행일기 공모 은상



# 20년만에 바꾼 운명

### '추운아이들' 입히려고 15년간 관음정근 하며 뜨개질을 했다. 그 아이들이 불자되길 발원하며...

**나**는 47년 전 경기도 수원시 매산동에서 1남4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조실부모하고 가정이 어려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서 객지를 전전했다. 그러다 대구 남산동에 작은방을 얻어 살면서 유흥업소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27년 전 동갑내기 친구 덕분으로 부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도반도 없었고, 인연있는 스님도 없었던 나는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접할 수 없었던 까닭에 기쁠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동화사 갖바위 부처님을 찾아 보았다. 밤새 부처님께 절을 하고 아침에 집으로 돌아오던 어느날 나는 부처님께 약속을 드렸다. 육바라밀 중의 보시 바라밀을 꼭 행하겠다고.

술집 다니는 사람들 치고 밋 없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런 내가 보시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고민이 되었다. 생각 끝에 교동시장에 가서 실과 바늘을 구입했다. 추운 겨울 땀뻘 보살펴 주는 이 없는 아이들에게 내가 손수 뜨개질한 옷을 입혀주기로 했다. 관음보살을 열송하며 한울한울 정성을 드린 옷을 입은 아이들이 장래에 부처님께 귀의하고 할복자가 되기를 기원하며 스웨터를 꼈다. 한달에 여섯벌 정도, 일년이면 50~60벌 정도를 만들었다. 주인 눈치를 봐야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스웨터를 뜨는 시간만큼은 마음이 항상 즐거웠다.

## 12시간 수술후 시한부인생 선고받아 술집여자가 포교사 될줄 아무도...

다. 부처님 법이 좋아 그저 작은 정성을 내었을 뿐이라며 거절을 했지만 기자는 풀려지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취재에 협조했고 활자화해 세상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그게 계기가 돼 나는 경북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도지사님은 언젠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탁하라며 격려해 주셨다.

그 후 몇년이 지난을까, 이제 겨우 서른을 넘은 나에게 크나큰 시련이 닥쳤다. 병이 생긴 것이다. 의료보험 카드가 없었던 나는 큰 병원 한번 가 보지 못하고 그저 병원을 알아내지도 못하는 동네 병원을 다니며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다. 돈은 바닥이 나고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릴 뿐이었다.

고통스러워하며 기도를 드리던 어느 날 밤 경북도지사에게 받은 표창장이 불현듯 눈에 띄었다. '아하, 지사님께 의료보험 카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드려 봐야지.' 지사님께 편지를 썼다. 하루만에 도청에 편지가 도착했는지 그날 오후 5시쯤 도청 관계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도청 관계자는 내 병 상태가 심각한 것 같으며 곧바로 입원조치를 해 주겠다. 환당이 심해 피부색이 까맣게 되어 버린 나를 본 의료진들은 곧 수술해야한다는 진단을 내렸다.

조직검사 후 나는 장장 12시간의 수술을 받았다. 눈을 뜨고보니 실낱 새벽 4시. 간암인 줄 알았는데 위장두부암이었다는 것이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담낭절제술로 6가지 내장을 빼어내야 했던 나는 3일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 그들

가 되어 주시기도 했다. 또 두달동안의 치료비 2천만원은 정부에서 선처해 주었다. 그리고 6개월이 고비였던 나에게 운문사 북대암 법준스님, 거창 동명사 원종스님이 직접 집에까지 방문해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셨다. 스님께서는 '술 인연을 끊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노력해 보라'고 하시면서 유발상좌로 삼아 주셨다.

그분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얼른 뜨개질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전생애 지은 업장을 진실한 기도로 청산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부처님께선 나를 보실때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 내가 지은 업은 당장은 안 나타나지만 그늘에 숨어있어 그를 따르다 했거늘... 스님께서는 "이제부터 조상천도하면서 자장기도를 해보라"고 하셨다. 그리고 "내가 늘 너를 보호할 것이다"고 말씀하셨다.

각지에서 보내주시는 성금과 봉사단체



그림 · 문병성

안 인연을 맺었던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보겠다며 다녀갔다. 그러나 나는 중환자실에서 하루빨리 나가야 한다는 생각만이었다. '부처님이시여!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전생애 지은 업장을 닦는 간절한 마음으로 악사여래불을 입서서 놓지 않았다.

비록 몸은 병상에서 괴로웠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7일만에 중환자실에서 나온 나의 사연이 매일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대구시민들이 7백만원의 성금을 모아주었고, 도청의 엄지호 선생님은 두달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최근 후에 방문해 주시며 격려해 주셨다. 엄 선생님은 보호자가 없는 나의 보호자

도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다. 하지만 그돈을 갖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일어 서야 했다. 부처님께 빌고 빌어서 얻은 목숨인데 라는 굳은 마음으로 기도에 매진했다. 큰스님은 나에게 눈도 나빠 지고 있으니 15년동안 해 왔던 뜨개질을 그만하라고 하셨다. 술집사도 그만 하라고 하셨다. 나는 기뻐했다. 사실 그 누군가에게서 나의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보라는 격려를 받고 싶던 차였다.

그 후 나는 또다시 난소와 자궁 적출술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번번하지 않았다. 열심히 기도하고 보시행을 하면 언젠가는 부처님 가피를 받을 것이

라는 스님의 말씀을 믿었다. 지금은 대구시 만촌동에 법화정사포교당을 수리하고 있다. 법당은 물론 봉사자들과 같이 소녀가장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독거노인, 장애인들을 돌봐주는 공간으로 꾸밀 것이다.

나는 '인파승보'를 믿는다. 내가 복을 짓지 않으면 받을 것도 없다는 것을 나는 체험했다. 20여 년동안 술집을 전전하던 여자가 여피 부처님 법을 전하는 포교사가 될 것을 누가 기히 짐작이라도 할 수 있었겠는가.

거룩하신 부처님! 진리만을 배우면서 꾸준히 정진하고 몸으로 행하겠습니다.

## 눈 안마기



가격 : 49,000원

본 상품은 안마 및 지압의 본 고장인 중국에서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것으로 아래의 근거로 설계하고 여러해 검증을 거쳐 완성한 제품입니다.

### 상품의 특성

1. 눈을 맑게 해줍니다. - 현대 생물자성학(BIOMAGNETIC)과 전통적 경맥학 성과를 응용하여, 22개의 영구 자석 침봉으로 눈 주위의 중요한 혈위에 작용하여, 안부세포의 생체 순환을 개선하고, 눈의 피로를 제거하며, 안근의 탄성을 회복하여 근시, 원시, 눈부심, 악시, 노인안 안질의 자연치유성을 충분히 강화시켜줍니다.
2. 뇌 기능을 향상시켜줍니다. - 태양열, 잔주혈 등 머리 부분 혈위를 고주파 마그네틱 침으로 눌러 마사지하므로 머리를 많이 써서 일어나는 어지럼증, 눈앞이 어른거림, 건망증, 불면증등 머리피로로 증합증세를 신속히 제거하여줍니다.
3. 미용효과가 있습니다. - 눈 주위의 주름살, 검어지는 것을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제거하여줍니다.

### 사용 방법

- 1) 안마기 위쪽의 건전지 뚜껑을 열고, 건전지의 극성에 맞게 넣고 뚜껑을 닫는다.
- 2) 안마기를 얼굴에 편안한 상태로 끼고, 소파나 등받이 의자등 편안한 자세로 머리를 뒤로 돌리고, 눈을 감는다.
- 3) 안마기를 작동한다.(안마기는 수동 또는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한 시간을 미리 1분, 2분, 3분중에 맞추고 제품 정면 가운데 위치한 자동버튼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이런 분들께 권해 드립니다. 컴퓨터에 장시간 앉아 사무를 보시는 분, 고3 수험생, 눈이 자주피로해 지는 노인분들, 시력이 나빠진 분들 평소엔 머리피로를 많이 느끼시는 분.

소형몰 주문방법 •전화: 02-732-1522 / 737-8881 •팩스: 02-737-0697 •인터넷: http://www.mahamall.co.kr

# 사람을 찾습니다.

저번주 이 신문에 처 수림이 1999년 7월 17일 아침부터 행방불명이 된 이유는 설명하였기에 이번에는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 이 사진의 여성을 급하게 찾습니다. 찾고 있는 사람은 처 수림의 남편인 재일한국인 저 김오남입니다.

※ 처 수림에게

이 신문을 보면 반드시 전화 주세요. 지금까지 두사람의 일로 나는 당신에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했던 것 같소. 일본에 있었을 때 일, 그리고 저번에 대구의 집에 전화했었던 일, 또는 절에 전화했었던 일, 이 전화했었던 것에 대한 일에 대해서 마음에도 없는 일을 큰소리로 말했소. 정말로 미안하오. 어보! 용서해 주오. 당신이 대구에 있는 절에 가서 3일동안 머물렀던 방을 보았소. 그 방앞에서 나는 눈에 눈물을 머금고 돌아왔소. 당신의 부모님도 화낸것에 대해 수림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소. 당신이 행방불명이 된 후부터 굉장히 괴로운 생활을 매일 하고 있소. 나의 돌아가신 어머니님과 부처님께 맹세하고 깊이깊이 반성하고 있소. 용서해주길 바라오. 부탁하오.

나는 심장발작 또는 자살로 인해 언제 죽을지 모르오. 이말은 정말이오. 죽기전에 한번 만나고 싶소. 부탁하오.

"당신을 죽을때까지 지키겠소" 라고 했던 말 기억하고 있소. 그때 당신은 "그마음 잊지말아오. 나는 당신과 끝까지 함께 있겠어오." 라고 서로간에 약속했지 않소. 나쁜일은 전부 잊고 그때 약속했던 것처럼 다시한번 새롭게 시작합시다. 부탁하오. 나를 살려주오 어보! 마음속으로부터 사랑하고 있소. 당신이 만들어준 카레라이스가 먹고 싶소. 당신을 믿고 있소. 반드시 연락을 해주기를 기다리겠소.



◆이름: 한수림 (韓秀林) ◆생년월일: 1961년 12월 15일 ◆혈액형: AB형  
◆년령: 39살(단지 39살처럼 보이지 않음 4~5살정도 젊어보임)  
◆신장: 154cm (자그마한 체구로서 피부색은 보통입니다.)

머리카락은 길면서 파마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름이므로 머리를 틀어올려서 모자를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어쩌면 머리스타일을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얼굴형은 사각형같은 얼굴형으로 턱뼈가 튀어나왔습니다. 눈은 쌍꺼풀이 있는 눈입니다. 눈두덩이가 부운 것 같이 조금 부어 있는 상태입니다. 눈썹에는 파광과 좁은 문신을 하고 있습니다.(화장을 하였을 때는 모르겠지만 화장을 안했을 때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약간 돼지고기 같은 코를 하고 있고, 입술 바로 위에 자그마한 상처가 있습니다. (화장을 하였을 때는 잘 보이지 않음.) 웃는 얼굴이 정말로 귀엽게 보이는 여성입니다. 이후 눈 또는 코의 성형가능성 있음.

마지막으로 매우 실례합니다만 찾아주시는 사례로 개인에는 많은 보성금을, 사찰에는 감사의 사례로 사찰불사에 도움이 되도록 시주토록 하였습니다. 부처님께 맹세하면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한국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래의 연락처 송미영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연락처: 서울 011-288-0712 / 일본 001-81-43-287-8228 송미영 한수림의 남편: 김오남(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부디 찾아주세요. 정말 부탁 부탁드립니다. 처 수림은 스님이 되어 머리를 깎았을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부모님도 대단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스님 및 절에 관련이 있는 분 또한 개인의 경우 처 수림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분은 아래의 처 수림의 동생 송미영에게 전화 주십시오. 부디, 여러분 부탁 드립니다.